

오늘은 2021년 2월 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전신갑주르 입으라.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두가지를 통해서 신앙의 무장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두가지로.

원래 몇 달동안 해야 여러분들이 절실히 깨닫게 될거예요

몇 달동안 하시면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거 아니야. 말씀도 중심할거 아니야. 그러면서 받을거 아니야.

아 맞구나. 이 주일말씀에 하나님 말씀 기도 강조했지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우리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했거든

말씀 들을 때 역사받았죠 감동되고 감화되고, 기도하니 말씀 받게 됐고,

또 기도하니 뭐가됐죠? 말씀 받았으니 말씀 행하니까 그대로 얻었지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기도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로 하나님 역사를 해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역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역사해서는 우리가 기도한 사람도 말씀 주는 사람도 아니잖아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말씀 줬고, 우리가 주지 않았어 하나님 준거야

내가 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줬다니까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 뭘 줬어. 우리 원하는 것 들어줬죠?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남자랑 여자랑 얘기를 했는데

아무 들어주지 않으면 뭐하러 말해요. 기도를 할 곳이 없지. 말할 것이 없지.

하나님 역사를 했다는거예요. 과거 기도했을 때 역사를 해서 줬고,

안 줬으면 현재의 신앙생활 하게 된 자가 없어요. 줘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거예요.

교회 잘 다니게 해달라고 했는데 교회 잘 다니잖아.

말씀 나로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깨닫고 해달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줬죠. 역사 해준거예요.

만일에 찬양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도 엄청나게 큰일이예요.

늘 찬양소리 은혜롭게 하는 찬양소리 들어야해요.

특히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천국 중에 아직 다는 못만들었지만

주신 것 나로 부르게 한 것 자꾸 불러야해요.

자기도 시인하고 노래를 해야해요.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해줘요.

찬양이 안해진다니까. 노래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해져요.

새들도 노래를 잘 해서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음성 있으니 무조건 흥얼거려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와같이 여러분들도 노래 잘하든지 못하든지 여러분 해야 되.

안 하면 은혜가 없어. 나부터도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노래를 안 하면 은혜가 없어요

나는 처음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할 시간도 없어요

행한 것 노래하고, 내가 행했으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행했으니까 말씀하는거야. 내가 행했으니까 거기서 또 기도하는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다. 기도하면 말씀이 오고, 말씀들으니 행하면서 찬양하는거예요.

그냥 똑똑하게 재미없게하면 예술성이 없어. 예술성 있는 것을 포함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면서 주니까 감사도 하는 거예요. 기도과 말씀과 찬양과 감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돌아가게되어 있어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고 찬양이 없으니까 어떻게됐죠?

똑똑하고 재미가 없잖아. 예술성이 없으니까

찬양하는 것이 감사예요. 노래하는 것이 감사라고.

맨날 돈만 드릴 수 없잖아. 찬양은 한없이 할 수 있잖아. 무한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수요일 같은 때 한 달 한 번씩 명곡의 사연 하는데, 이제 여러분 충분히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해도 되니까 충분하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한달에 한 번씩 아니라 나는 매일 해야겠다. 여러분 매일 하라고 시동 걸어준거예요.
매일 노래하라. 알겠어요?

선생님 노래할 때 어떻게 하죠? 그냥 한 개 더 숫자하기 위해서 판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그 때 바로 노래하는거예요. 여러분도 그때그때 바로 감사하고 노래해야죠.
안 하는 사람은 다른 날 한다니까. 왜? 매일하는 사람은 다른 날은 다른 것 또 온다고
찬양할 거 또온다니까. 그런 삶이 연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준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너무나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먹어요
항상 국가대표하는 사람 자기 회사 대표해서 경기하는 자 이와 같이 하는 자를
감독이 쳐다보듯이 코치가 쳐다보듯이 기대하듯이 그 팀이 기대하듯이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잘 하면 이기고, 실력껏 잘 하면 이기고. 어떤 실력을 다 해도 지기도 하.
상대가 실력이 더 좋으니까. 우리 상대는 아주 잘 해야하고 기술을 자꾸 익혀야 되.
기술이 있어야 되. 그래야 잘 하게 되. 실수를 안 하려면 계속 반복해서 해야하고.
하나님 우리 기대하고 계신다. 이기게. 하나님 돕지도 않으시면서 이기게 원하시잖아요.
마음이 안 가니까. 하나님 도우면서 이기게 하시는거예요. 도와도 못 이긴다 할 때는 본인이 실수했든지
그 실력갓고 안되든지 해요.

오늘은 바뀌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맞추면 상준다 그 소리 하기 겁나.
왜 돌이 바뀌었을까? 생긴 것을 잘 보라니까.여기가 좌측 맨 낮은 단계 중간 조금 높은단계 맨 높은단계
수석으로는 3단석.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 이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출발해야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출발! 맞죠?

그 주인한테 얘기도 않고, 하면은 자기 생각 갖고 실천한다니까.

주인에게 간절히 얘기해서 말씀 듣고 나가서 실천해야지,

실천하고 잘했습니다. 감사해야지. 기도안하면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 받지 않고 실천하면은 주인은 달갑게 생각지 않
아요. 왜 그렇게 했냐 따지지 이제. 하나님 주인 성령님 주인 주님의 주인은 딱 먼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먼저 말씀 듣는거예요. 기도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뭘 말씀하면 거기 해당되게 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해요.
그러면서 실천하면서 좋아서 찬양도 부르고 실천해서 받으면 감사도 하고.
그렇게 딱 4가지가 이뤄지는 거예요.

이건 10년가도 20년 가도 50년 가도 100년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기본은 꼭 해야합니다. 이것이 이뤄지면 이뤄지는대로 돕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안될때는 기대가 어긋나.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고 바란다고 했죠? 이것이 없으면 기대가 어긋나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해. 그걸 무장이라고 해. 군인으로 말하면 이것이 무장이다.

말씀은 마치 무기같고, 기도는 무기 속의 실탄같다.

두가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무기와 실탄.

활과 화살. 활은 말씀 화살은 기도.

딱 맞으면 노래가 나오죠. 기뻐서. 야 됐다고.

맞으면 감격해서 감사가 나오죠. 자동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실천하면서 노래. 그리고 얻으니까 감사가 나오는거예요.

뭘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뭘 해주죠? 하니 이것을 해달라.

기도하라. 말씀을 받으라. 그리고 실천하라. 찬양도하고, 노래하고, 예술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감사도하고 감격도 하
라. 이것을 해달라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두 번째는 감사해야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됐다고.
하나님 역사 하나님 말씀 받게되고 시대 주를 만나게 됐다고.
그 다음에 가서는 뭘 해줄까요 하나님? 이런거 해달라. 지금말한 4가지 기본으로 해달라
너 원하는거 무엇인가 나한테 얘기를 하.
이것이 아주 순금같은 다이아몬드같은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 받은 말씀인데 수요일날 많이 더 하라.
그 이튿날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했더니만 50장말씀 받았어요.

좀 더 더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대화하면서 쓴 말씀인데 이렇게 많아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써놨어요. 좀 더 하니까. 좀 더 더 하니까.
그대로 실천했죠. 실천하면 바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로 말씀한 것을 실천하면은 줘.
직접 받으니까 말씀. 직접 안 받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
여기는 순서별로 짝 잠언 50개를 늘어놔서 깨끗이 써놨어요.
잠언 50개에 50장을 썼으니까. 연결시키면 설교가 되는거야.

무슨말씀 들어있을까.
이것은 주일날도 나올거예요. 지금은 다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말씀 주면서 죽 하는데, 내가 목이 쉬었으니까 조은이 목사 해달라고 했어요.
기도만 파고들어 하니까 목이 쉬는 거예요.
조은이 목사 또박또박 목도 안 쉬고 잘 하거든. 이 말씀 죽 하면서 예고편을 주는데
미리부터 바통쥐고 해라고, 금요일이니 미리부터 예고편을 약간 줄게요.
전체에게도 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좀 더 하라 했어 나에게.
좀 더 하니 줬어요. 여러분 좀 더 하라. 좀 더 하라 하면 100개 같으면 한 95개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하라 했지. 한 70갯으면더 많이 해야되겠다 한다니까
조금 더가 엄청난 것으로 좌우되요. 이 말씀속에는 굉장히 하늘나라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땅의 것도 들어있지만. 우리가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실천과 실천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감사. 찬양.
이 4가지를 꼭 하라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좀 더 하라.

내가 행하면서 겪어보니까 요즘에 할 일이 너무 많아.
방안에서도 안나가도 방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생명 관리, 본인만 뛰어들어가면 쑥쑥 이끌어와요. 본인이 뛰어들어가면.
교역자 뛰어들어가고, 본인 자신이 뛰어들어가서 하면 쑥쑥 표가나.
반드시 혼자는 힘도 없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된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되. 어림도 없어.
내가 기도를 해줘야해요. 해봤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봤잖아.
여러분들 기성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 만히 해봤잖아.
기도했는데 새로운 시대 말씀 받았어? 한자도 못바닷어. 받을 수가 없었어
이 시대 오니까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시대 바뀌니 기도 내용 달라야해요
그리고 말씀 받잖아. 혼자는 안된다는거야. 믿습니까?
또 나 혼자는 안 되. 말씀 받고 왔는데 듣는 사람이 있어야되잖아.
여러분이 있어야되잖아. 그러면 하나님 항상 원하시니 딱 되는거예요.
혼자는 안 되니 성도들 따르는 자들 혼자는 못하지.
지도자가 짝 나서야해요. 지도자가 과감하게 독수리 사냥을 해야 해.
어미 독수리가 해야되. 아버지 독수리가 해야 되.
그러면서 새끼들도 같이 해야 되. 같이 안 하면 안 되. 혼자는 안 되. 최하는 둘이.
발장구 맞춰서 들어야 한다고. 내적과 외적과. 선생님 혼자는 안 되.

전체가 할때도 있고 나름 상대되는 사람 써서 합니다. 내적과 외적으로
 여러분도 혼자는 안 되. 교역자가 짝 파고들어야해. 지도자가 짝 파고들어야 해.
 혼자는 안 되. 지도자 혼자는 안 되요. 상대가 같이 들어붙어야 되.
 바로 그렇게해서 일이끝나는 것이다. 하나님 성부 성자는 같이 해.
 성부 성자 성신 같이 안 하셔. 삼위가 같이 딱 다녀. 무조건 성령님 오시면 하나님도 같이 오세요.
 그 속에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땅에서 이뤄지면서 하늘에서 이뤄진다.
 하늘 혼자 안되. 삼위일체 다는 안되. 땅의 육신 통해서 한단 말이야.
 영이 혼자는 못 갖다놔. 육이랑 같이 해야되. 육 혼자는 안 되. 마음이 안 가는데?
 마음이 안가는데 되져? 되지를 앓는 거예요. 마음이 잊어버렸냐? 이것이 되? 마음이 잊어버렸는데?
 혼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둘이 같이 해야해요 마음과 정신이 깨고 생각나고.
 그러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해도 혼자는 안 되.
 땅과 하늘 머리와 대상들 주와 따르는 자들과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새벽설교도 주일 못지 않게 깊은 말씀 나가요
 어마어마한 말씀 나가요. 깊은 말씀이 새벽에 다 받아요.
 주일말씀과 똑같이 말씀과 어마어마한 차원높여서 해주는거예요.
 영계들어가서 한거예요 어제 4시간동안 영계들어가서 이 속에 있으면서도
 여기 있는 것도 스쳐나왔어요 몇 개. 오늘 아침말씀으로 딱 묶어서 줬으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안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면 본인만 손해가는거야. 발버둥 100배쳐도 못 얻는거여.
 말씀해준 것 같이 움직여 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기도하니 마지막 한 10여초만 더 해줄게요.

기도하니 나뿐만 아니라 민족 내가 생각하는 사람 그대로 봤어요
 톡톡히 봤어요. 돕는가 안돕는가 하나님. 끝까지 내가 쳐다보고 있으니 기도하니 돕더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도와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돕더라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사람만 특별히 돕더라고 기도하니까. 봤어. 톡톡히 봤어.
 나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까지 하나님 도우시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그러고 그도 느끼게 해달라고하니까 바로 느꼈느니라.
 선생님 기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느꼈느니라. 전화해줄필요도 없다.
 내가 바로 해서 느끼게 해줬다.
 이 터전위에 나도 말씀 또 받을거예요. 이 터전 위에.
 그러면 모두 내가 이 귀한 말씀 꼭 봉함하고 지키라고 기도해줄게요.
 여러분 기도하다 부지런히 직장도가고 하루일도 시자하자고요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것 하나님 성령께서 금덩어리 주듯이 줬으니
 이 말씀가지고 실천하고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이들되게
 영광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금주 오늘도 내일도 실천하면서 금주동안 말씀한 것
 가슴에 받아들이고 열심히 뛰고 달리는 이들 되도록.
 이들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기도한 자가 기도한자 돕는 것 톡톡히 봤는데
 어제 밤이 새도록 봤습니다. 기도해서 돕는 걸 알아라.
 네가 기도 안 했으면 기도해도 끝까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끝내 핵적인 것을 도와주는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함께하심같이 그들에게도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한다 그러니 실천해야한다 그러니 좀더해야한다. 좀더는 끝까지하라
 영광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였은즉 정녕 이루어지리라
 찬양하였으니 하나님 정녕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 자기도 감동받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나오고 영광돌리는 것이니라 이런 것이 없이는 뭐하러 하나님 믿고 즐거워하느냐
 즐거움에참여하고 열심히 하도록 축복. 내가 이들 축복하니 영육 잘되고 형통하고
 말씀 잘 해서 은혜끼치고 연구 많이해서 더 차원높은 세계 전해주고
 낙심해주면 반드시 교역자 나도 본인도 같이 해야한다.
 혼자갖고는 안되고 하나님 성령과 성자와 주와 같이 해야한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 그대로 행함이 되게해주시고 그래야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다.
 옛날에 갑주는 지금 전쟁자체가 옛날 식으로 안 하니 필요가 없다.
 지금은 옷이 갑주를 만들었다. 방탄 옷으로 만들었어. 시대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야 이 시대 전쟁할 때에 무기를 피할 수 있어.
 그거 아니면 못 피해. 옛날 방독면 필요없어. 지금은 방독면 필요해요. 가스전쟁이기에.
 옛날식으로 하면 죽는다. 새로운 시대로 하라. 새롭게 하라.
 이것이 바로 새롭게 하는 일들이라 했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일어나 기도하고 실천해서 기도하는 이들되도록 축복.
 내가 이들 위해 기도하였은즉 정녕히 주시는 지금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니 반드시 예비하고 행하라
 예비하지 않고 행하면 그날이 덧과같이 오리라. 어려움이 올 때 막을 수가 없으리라
 항상 예비함이 되라. 너희들 의상이 깨끗하면 알아보게 다르게 보이고 돋보이는거야.
 나무가 깨끗하고 멋있고 과일이 멋있으면 알아보게 사람들이 그 나무 밑을 찾는 것입니다.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그리고 신비하고 우리들은 옷을 깨끗이 입어라.
 육신도 그러하고 영혼도 그러하다. 행위대로 하나님 옷을 입히느니 행위대로 간다
 하늘나라 옷입은데로 가서 있다. 군인들 군인옷입으니 군대로 가야한다.
 공군옷 공군으로 해군옷 해군으로. 너희들 옷 입은대로 그 나라 차지하리라
 황금천국 가려면 휴거된 옷을 입지 않으면 갈 수 없느니라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말씀 듣고 옷을 입었으니 감당하며 더럽히지 말고 열심히하게 축복.
 내가 이들 축복하니 그리할지어다. 악착같이해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아픈자 약한자 엎어진자 하나님 잡아줄 때 열심히하게하고 낙심하고 엎어진자 이끌어주고 잡아주는
 기간이 되도록 모두 힘있게 행하게 축복. 내가 간구하였은 즉 모두 그렇게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얻을지어다.
 간구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